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1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5)  
웅장한 암벽 두른 오름의 맹주

입력 : 2004. 06.25. 00:00:00



▲높이가 30~50m에 이르는 성널오름의 수직암벽지대. 이 암벽지대에는 성널오름의 유래가 담겨 있다. 암벽이 마치 성벽처럼 보이다해서 성널오름, 성판악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성널오름(성판악)은 도민 뿐만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진 오름이다.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있으며, 한라산을 가로 지르는 5.16도로 중간 지점인 성판악 휴게소 너머 등반로변에 위치해 있다. 탐사팀은 현충일인 6일 이곳을 찾았다. 이날은 참으로 고된 산행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가파른 능선을 오르내리느라 탐사단 전원이 기진맥진했다. 탐사단이 의존한 것이라곤 제주조릿대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조릿대는 초여름 난데없이 눈썰매가 되어주었다...○

## △성널오름

탐사팀은 등반로 대신 성판악휴게소 남쪽 '숲터널' 중간쯤에서 오름으로 향했다. 이곳은 입산이 금지돼 있다. 숲터널 북쪽에 논고악이 위치해 있는데 이 오름 북사면에 잣성으로 추정되는 겁담이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폭과 높이가 각각 1<&27841>쯤 될 정도로 견고하다.

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은 "이 곳의 해발고도가 700m임을 감안할 때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잣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문필 탐사위원은 "이동이 편리한 등반로 대신 굳이 험한 이곳으로 탐사팀을 안내한 이유가 바로 이 잣성 때문"이라고 한다. 탐사팀은 잣성을 찾느라고 한참 동안 길을 찾아 헤매기도 했지만 귀중한 역사유적을 확인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성널오름은 한라산의 울창한 숲에 가려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논고악과 사라오름 정상에 서면 이 오름의 산체가 눈에 들어온다. 2시간쯤 흘렀을까. 좁은 등산로와 수도관이 드러난다. 수도관은 성판악휴게소까지 이어져 있는데 등반객들이 휴게소에서 목을 축이는 음용수의 급수원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수도관은 급수원인 성널폭포의 길목인 것이다.

이 오름은 웅장하고 의연한 산체로 크고 가파르며,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동쪽 산사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오름나그네' 김종철의 표현처럼 오름중의 맹주라 하기에 손색이 없다. 사방에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패어 있으며, 전사면이 울창한 숲으로 덮혀있다. 성널계곡은 남제주군 남원읍 하구로 이어지는 신례천과 서중천의 발원지다.

성널계곡에 감춰진 폭포에 이르렀다. 바로 성널폭포다.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이 성널폭포를 이루어 오래전부터 약수터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에 전신을 맞는 물맞이 터로 유명했던 곳이다. 물맞이를 위해 몇일씩 머물기도 했는데 성널폭포는 제주사람들에게 여름철 피서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왔다.

성널폭포는 높이 8~10m, 넓이는 5~6m로 가는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폭포아래는 수도를 위해 설치됐던 암자와 피서객들이 쉬었던 자취가 남아 있다. 특히 성널폭포는 산중의 물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성널폭포의 물은 남제주군 남원읍 중산간 일대 마을에 소중한 상수원이 되어주었다. 지금은 이곳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탐사팀은 잠시 땀을 식힌 뒤 성널오름 석벽으로 향했다. 대탐사 1부 '하천과 계곡' 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2월 11일에도 이곳을 찾았다. 그때는 눈덮인 설경과 고드름이 탐사팀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이다. 언제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동남 방향으로 사면을 따라 이동하니 이윽고 수직암벽지대다. 암벽지대에서 떨어져 나간 암석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풍화가 진행중인 것이다. 암벽지대는 높이 30~50m, 그 폭이 어림잡아도 5백m에 이른다.

이 암벽지대에는 성널오름의 유래가 담겨있다. 산 중턱에 암벽이 널 모양으로 둘러있는 것이 마치 성벽처럼 보인다 해서 성널오름이라 하고 성판악(城板岳)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옛 문헌에도 석벽여성판(石壁如城板)이라 했다.

풍수전문가인 신영대 탐사위원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깊어져 가는 대자연의 신비, 때로 험난한 하천과 계곡 사이에서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이 경이롭다"고 했다. 탐사팀 모두의 느낌이 이와 같았다.

## ●[전문가 리포트]성널오름 지질 답사기

분석구 오름을 구성하는 송이층의 분포로 볼 때, 성널오름은 해발 약 1,050m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해발 1,215.2m까지의 북서~남동 방향으로 약간 신장된 타원형의 화산체이다. 일반적인 분석구와는 달리 뚜렷한 분화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성널오름의 남동측 송이층의 하부 사면에 조면암으로 구성된 절벽이 높이 10~40m, 연장 0.5~0.7km로 북동~남서방향으로 연속되어 있다. 11번 국도(5.16도로)의 논고약 근처에서 바라보면 이 조면암 절벽이 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처럼 보이기도 한다.

절벽을 구성하는 조면암은 담회색 내지 황회색으로 주상절리와 판상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암질이 치밀하고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광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조면암은 과거 상호조면암(윤선)이라 명명된 암석으로 그 형성시기가 매우 오래된 암석인데, 대부분 현무암 또는 퇴적층에 피복되어 지표에 노출된 경우는 매우 드문 암석이다. 아마 성널오름을 중심으로 화산활동과 함께 지각의 용기와 함몰됨에 의해 단층절벽이 형성됨에 따라 하부의 조면암이 지표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성널오름의 정상에서 남동방향으로 조면암 절벽을 지나서부터 좁고 급한 능선이 약 400m 이상 연속되어 있으며, 이 능선에 매우 흥미로운 암석이 분포하고 있다. 즉, 능선의 정상부 중심을 따라 폭 0.5~2<math>\times</math>, 높이 1~10m의 판상 현무암이 마치 돌담(울타리)과 같이 연속되어 있다. 이 현무암은 그 분포와 형태(모양)로 볼 때, 화산활동의 중심이 되는 화구 하부의 암경에 연속된 관입암체로 추정되며, 이렇게 좁고 길면서 수직 방향의 구조를 나타내는 현무암 노두는 제주에서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제주도 화산활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장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차연 탐사위원( 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

## ●[전문가 리포트]성채(城砦)를 연상케 하는 오름

성널오름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오름들과 비교하면 매우 큰 산체(山體)를 자랑한다. 성널오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넓은 가슴을 지닌 아버지 같은 오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널오름의 남~남동쪽 방향에는 특히 중세의 성채(城砦)를 연상케 하는 '성널(城板)'이 높게 솟아 있어 접근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표고 약 1000m 지점에서 바라보는 '성널'의 위용은 정말 심장이 멎어버릴 듯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성널은 널판과 같은 암석 덩어리가 상부에 덮여있던 피복물이 걷히면서 드러난 것인데, 이 암석은 현무암보다는 기공(氣孔)이 적고 암석의 결정구조가 치밀한 조면암이다. 그리고 성널의 규모는 높이가 약 30~50m로서 500m 정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성채와 같은 바위틈 곳곳에는

수줍은 듯 몸을 움츠린 부채손이 균락을 이루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널오름을 지키는 신선 이 온갖 조화를 부려 꾸며놓은 암벽화원(岩壁花園)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성널오름으로 향하는 중간 길목에는 폭포 하나가 있어 행인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지금은 거의 잊혀져버린 성널폭포이다. 성널폭포는 한 때 물맞이객들로 붐비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폭포의 높이는 어림잡아도 10m 정도는 돼 보였지만, 아직 장마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6월의 물줄기는 그다지 시원스럽지 못했다.

성널오름은 뻣뻣하게 자란 나무숲이 좀처럼 길을 열어주지 않아 정상에 발을 들여놓기가 간단치 않았다. 또한 정상에 오르고 나서도, 어디가 분화구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향감각을 상실케 했다. 바로 이점이 성널오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성널오름의 분화구는 한가운데가 아주 낮고 둥그런 형태로 패여 있지만, 분화구를 벗어나면서부터는 북서~남동방향의 길쭉한 타원형의 지형이 능선부를 이루며 이어진다.

따라서 분화구 안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오름 능선에 서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변부를 무성하게 뒤덮고 있는 나무숲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성널오름은 오름 정상에 올라서서 감상하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감상하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오름이라 할 수 있다.

<정광중 탐사위원( 제주교대 교수/ 인문지리분야 )>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 )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